

# 영암군, 노동력 절감 환경보호 농자재 지원한다

###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투자사업 군비 5억여원 투입 529ha 편성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강화 읍·면행정복지센터 21일까지

영암군이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에 나섰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노동절감형 생

분해성 멀칭 농자재 상생투자사업' 참여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원예·밭작물 재배 등에 쓰이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는 기존 플라스틱 기반 비닐 소재와는 달리 토양에서 서서히 자연 분해돼 친환경적이고 수확 후 따로 비닐을 치울 필요가 없어 농가 노동력 절감에도 기여도가 높다.

2024년 7농가 5ha에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지원한 전남도는 올해 31ha 규모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영암군은 올해 529ha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5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총 560ha 규모로 1차 사업 참여 농가 모집을 마친 상태다.

영암군은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멀칭 필름을 지원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영암의 입지를 높이고 잡초 방지와 폐필름 수거에 들어가는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예·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농가별 최대 2

ha를 지원한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농업인은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상생투자사업으로 농업인들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노동력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강진군, 2만4296개 시설 대상

강진군은 오는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필수 조사로, 관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도로명판·기초번호판·건물번호판)에 대해 없거나 망가짐 및 위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업이다.

군은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KAIS'를 활용해 현장 조사로 훼손·망실·표기 오류 등의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로명판 3955개, 기초번호판 647개, 건물번호판 1만9022개, 국가지점번호판 384개, 사물주소판 285개, 주소정보안내판 3개로 총 2만4296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떨어지거나 망가진 시설물은 즉시 철거 후 정비하고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은 신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진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관내 주소정보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무안군, 4월18일까지

무안군은 상하수도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18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 전화 통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한번에 납부하기 힘든 수용가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무안군, 예산 소진 시까지

무안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 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해 17일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40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17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무안군인 사업자, 법인은 무안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를 뒤야 신청할 수 있다.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2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농업인 등 구매자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많은 주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신안군보건소 직원이 어르신을 채혈하고 있다. 신안군은 암태면 등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조기발견을 위한 'C형간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신안군이 증도면, 암태면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C형간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C형간염 퇴치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전남도, 신안군 보건소, 전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호남권 질병 대응센터, 광주·전남지역 암센터가 참여해 C형간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치료·관

리해 온 사업이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염되는 간 질환으로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형간염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렵지만, 최근 치료제 개발로 95% 이상이 완치가 가능해졌다.

군은 증도면, 암태면 35개 마을의 20세

이상 실거주 주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자 중 중위 소득 130% 이하 환자에게는 C형간염 치료에 따른 외래진료비 및 300만원 상당의 치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안군보건소관계자는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료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만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검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목포시, 음식점 친절·위생 점검

### 개인별 찬기 제공 여부 등

목포시는 최근 음식문화개선 실천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열고 친절·위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모니터 요원 5명은 사전교육을 마친 후 18일까지 관내 모범업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달여먹기 위생용품 제공 △개인별 찬기 제공 △조리종사자 위생모 착용 △주방 청결 상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앞접시, 개인용 집게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개

인별로 반찬을 나눠 제공하는지 여부,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와 앞치마 착용 상태, 주방 청결 및 개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업소는 추가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적정량 제공, 반찬 가짓수 줄이기,

소형 잔기 사용 등을 권장하며 좋은 식단 실천 홍보도 병행한다. 위생관리 우수 업소를 발굴하고, 청결운동 및 위생물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운희 목포시 보건위생과장은 "오는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 및 관계자 등이 목포를 방문해 '맛의 도시 목포'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강진군, 다산청렴교육 운영 내달 19일부터 16회 진행

강진군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오는 3월7일까지 다산청렴교육 정규과정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정규과정은 16회 교육에 88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산청렴교육은 전국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청렴, 국민정신을 기반으로 강의 및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 강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5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정규과정인 다산 공직관 청렴교육과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 수시과정인 다산체협 청렴교육과 청렴·정책교육, 특별과정인 다산가족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 정규과정은 공무원 푸소 3박4일 특화과정 도입, 교육 기수별 정원을 최대 64명에서 최대 96명까지 확대 선발하는 등 강진군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선제다산박물관장은 "다산청렴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교육 이미지 제고 및 입소문과 재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며 "직·간접적으로 교육과 연관되는 관내 소상공인, 푸소농가,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 분야에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